

◆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19.11.10(일)~11.16(토), 대만, 싱가포르

2019년도 아동정책 실무역량강화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목 차

I . 출장개요	1
II . 기관 방문 주요 결과	3
1. 중국문화대학 사회복지학 연구소	3
2. 위생복지부 보호복무사	6
3. 에덴사회복지재단	7
4. 아동복지중심 아동복지시설	8
5. 사회가족개발부 아동보호 및 아동복지 파트	9
6. 메리몬트센터 어린이의 집	15
7. 사회가족개발부 가족서비스 및 입양 파트	19

1. 출장 개요

□ 목적

- 우수 선진국 견학 및 아동정책 학습을 통해 향후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과정상 활용 등 질적 제고
- 해외 아동정책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아동분야 담당자의 역량 제고 및 사기진작 도모

□ 기간 : 2019. 11. 10. (일) ~ 11. 16. (토)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대만

- 중국문화대학 사회복지학 연구소(社會福利學系暨研究所)
- 위생복지부 보호복무사(衛生福利部保護服務司)
- 에덴사회복지재단(新北市 愛德養護中心)
- 아동복지중심 아동복지시설(兒童福利中心)

○ 싱가포르

- 사회가족개발부 아동보호 및 아동복지 파트(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Child Protection and Child Welfare Part)
- 메리몬트센터 어린이의 집(Voluntary Children's Home/Marymount Centre)
- 사회가족개발부 아동보호센터-가족서비스 및 입양 파트(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Child Protection Specialist Centre- Family Service and Adoption Part)

출장자 인적사항

구분	소속	직위(급)	성명
1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	임현규
2	보건복지부	행정주사	손태원
3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이재혁
4	보건복지부	보건주사보	김보은
5	광주광역시	지방행정주사	류지은
6	서울특별시	지방사회복지주사	최문선
7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주사보	고은희
8	전라북도	지방행정주사	이경희
9	전라북도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장선경
10	경상북도	행정사무관	안일환
11	경상북도	지방행정주사	김종상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지민

2. 출장내용

① 대만

1. 중국문화대학 사회복지학 연구소[社會福利學系暨研究所]

□ 방문 개요

- (일 시) 2019. 11. 11.(월), 10:00~12:00
- (장 소) 중국문화대학 사회복지학 연구소 사무실
- (담당자) 권진황(교수)

□ 기관 개요

- 중국문화대학교는 1962년에 극동연구소(Far East research Institute)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1980년에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기준을 충족하고 종합대학으로 인정받아 중국문화대학(Chinese Culture University)이 되었음.
- 현재 약 1,600명의 교직원이 12개 단과대학 61개 학과, 43개 석사 프로그램, 12개 박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동문수는 23,000명으로 이는 대만 인구의 1%에 달함
-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사회 복지, 교육, 상담, 심리학 및 기타 사회와 협력하여 국내 및 국제 학술 세미나를 조직하고 다양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실제 및 학술 교류를 장려하며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장기적 변화 추세와 국가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 제공
 - 사회 복지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 사회 복지 학문 분야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
- 사회복지학과의 연구 초점은 연구 및 교육 분야를 확장하고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 여성 복지,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및 노동

복지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복지 서비스를 통합하여 정부 정책 및 사회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사회 요구와 사회 복지 맥락을 파악하고 연구와 학문에 반영하기 위해 요양원, 보육원 및 사회 복지 기관의 전문가 또는 사회 보험 및 기타 전문 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모집하면서 사회복리학과의 특성이 살리고 있음

【 주요 질의 및 응답 】

Q1. 세계적인 추세 혹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대만 아동복지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과 같은 문화적 차이나 아동복지 예산 규모의 특별성과 같은 재정적 차이 등?

- ▶ 대만의 경우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체벌 등)를 가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6%로, 한국 등 아시아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임. 이는 아동 학대에 대한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타 아시아국가에 비해 엄격한 문화라고 볼 수 있음

Q2. 가족, 청소년, 아동과 관련하여 대만에서 최근 대두되는 사회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 ▶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지만 스마트폰이나 SNS, 게임 등에 관한 문제가 새로운 문제임

Q3. 앞으로 대만의 아동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 ▶ 가정 뿐 아니라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함

Q4. 최근 대만 아동복지 학계에서 크게 관심 받고 있는 혹은 새롭게 대

두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 학대 방임으로부터의 아동보호는 항상 학계의 주요 이슈이며 소외 계층아동, 빈곤아동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Q5.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최근에 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과제는 무엇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 ▶ 2019년에는 대만 사회복지협회 연례 회의에서 경험적 연구 기반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주제에 소외 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방과후 생활에 대한 논문과 취약 아동 및 청소년의 주관적 복지 성장 궤적에 관한 연구 등을 발표한 바 있음

Q6. 학계 연구가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서비스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연구와 실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대만 정부나 중국문화대학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 문화대학 사회복리연구소 석사과장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일부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 연구에 참여하는 비중은 전업 학생들이 높지만 현장에서 실무를 다루면서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학생들의 역할이 학계 연구가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에 잘 적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움이 됨.

2. 위생복지부 보호복무사[衛生福利部保護服務司]

□ 방문 개요

- (일 시) 2019. 11. 11. (월), 15:00~17:00
- (장 소) 위생복지부 보호복무사 201호 회의실
- (면담자) 임춘연 간임, 황서애 과장, 오혜군 과장, 오건승 과장

□ 기관 개요

- 위생복지부 보호복무사 (衛生福利部保護服務司,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같은 부처로, 보호서비스 부서에서 아동 보호 및 아동 성착취 예방 정책을 비롯해 가정 폭력, 성폭력 예방 및 노인보호,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인 보호, 피해자 보호 규정 및 개발 계획 등을 담당
- 서비스 프로그램, 교육 진흥 및 연구 개발, 사안을 홍보 및 감독하고 있으며 사업 범위는 가정내 폭력 방지위원회, 사회부 및 아동 국의 보호 사업을 포함
- 보호서비스 부서의 다섯가지 사업 분류는 아래와 같음
 - 성희롱 예방 정책 계획, 규제 및 개발, 구호 및 중재 시스템 구축, 교육 진흥 및 연구 개발 문제
 - 가정 폭력 예방 정책 계획, 규제 및 개발, 피해자 보호 서비스 프로그램, 교육 홍보 및 연구 개발 문제
 - 성폭행 예방 정책 계획, 규제 및 연구, 피해자 보호 서비스 프로그램, 교육 진흥 및 연구 개발 문제
 -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정책 계획, 규제 및 연구, 피해자 보호 서비스 프로그램, 교육 홍보 및 연구 개발 문제
 -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 착취 및 예방 및 고등학생 청소년 상담 정책에 대한 계획, 판촉 및 관련 규정

3. 에덴사회복지재단 [新北市 愛德養護中心]

□ 방문 개요

- (일 시) 2019. 11. 12. (화), 10:00~12:00
- (장 소) 에덴사회복지재단
- (면담자) 시설 담당자 다수

□ 기관 개요

- 여성 힐체어 작가 Liu Hsia에 의해 1982년 장애인 및 기타 사회적 소외 계층을 위해 설립된 곳으로 현재 대만 전역에 120개 이상의 기관을 운영중이며 직원 3,000명 중 25%가 장애인임
- 말레이시아 페낭과 쿠알라룸푸르에 자매조직이 있으며 베트남과 중국 쓰촨에도 사회복지 기관을 운영중. 태국과 라오스에서는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재활, 조기개입, 장기 간호 서비스, 이민자 및 재난 피해자를 위한 지역 사회 재건 활동을 하고 있음
-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는 크게 국제문제 관련, 중국 대륙 대상, 국내 대상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제문제 관련: 보조기구 기부, 재난구호, 말레이시아 등 타국에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아시아 및 태평양 장애 포럼(APDF) 등에 참여 등
 - 중국 본토 대륙 대상 서비스: 2008년 중국 Wenchuan 지진, 2010년 Yushu 지진 등과 관련하여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여 장애인을 위한 회복 치료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재건 및 기타 사회 사업을 지원. 10,000명 이상의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를 중국 본토로 파견하여 농촌 지역 어린이를 위한 교육 지원, 조기개입,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
 - 국내 서비스: 발달지연 혹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개입 서비스, 성인기 정신장애 및 신체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직업 상담, 정서 치료, 노인 장애인을 위한 치료 서비스 제공. 전생애에 걸친 종 체적 치료 제공을 목표로 함

4. 아동복지중심 아동복지시설(兒童福利中心)

□ 방문 개요

- (일 시) 2019. 11. 13. (수), 10:00~
- (장 소) 아동복지중심 아동복지시설
- (면담자) 시설 담당자 다수

□ 기관 개요

- 중화민국 58년(1969년)에 중국에서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가난하고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와 티벳 어린이를 주로 돌보았으나 사회 환경의 변화로 아동 학대 피해아동, 다문화 가정 아동 등 다양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
 - 아동 청소년 보호: 부모의 범죄 혹은 가정의 빈곤 등으로 인해 가정외보호가 필요한 3~8세 어린이에게 법원의 심리결과에 따라 보호를 제공함
 -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주민 교육, 보건서비스, 취약가정을 위한 여름 캠프 등
- 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지역 사회 봉사, 부모 교육, 재능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교 및 유아교육 부서의 인턴십 프로그램과도 연계되어 있음.

② 싱가포르

5. 사회가족개발부 아동보호 및 아동복지 파트(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Child Protection and Child Welfare Part)

□ 방문 개요

- (일 시) 2019. 11. 14. (목), 10:00~12:00
- (장 소) 사회가족개발부 2층 Raffles Room
- (면담자) Jai Prakash(Child Protective Service Director), Jasmin Lopez(Child Welfare Senior Deputy Director) 외 5명

□ 기관 개요

- 세이브더칠드런의 후기 아동기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슬로베니아와 함께 아동이 성장하기 가장 좋은 나라(우리나라는 아이슬란드, 이탈리와 함께 공동8위)로 어린이들이 양질의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임 (2018 End of Childhood report; Save the Children, 2018).
- 사회가족개발부에서는 정책, 커뮤니티 인프라,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통해 싱가포르의 사회를 보다 탄력적으로 만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회가족개발부의 부서는 크게 3가지 그룹으로 분류됨
 - 지원 부서: 고객 및 국제 관계과, 금융 시설과, 인적 자원과, 정보 기술과, 전략 기획 연구 개발과
 - 가족 개발 부서: 노화 및 대가족과, 가족 e-서비스 및 디지털 솔루션 사업과, 가족 참여지원과, 가족 정책국, 가족 서비스과, 가족 지원과
 - 사회 개발 부서: 중앙 청소년지도국, 시행 및 자격제도과, 도박 예방과, 여성 개발국, 사회 복지국, 재활 보호 그룹, 부문 기획 개발과, 사회 정책 및 서비스과, 사회 봉사 ICT (SSICT) 프로그램 사무소
- 이 중 사회개발부서의 재활 보호 그룹(Rehabilitation and Protection

Group)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안전하고 육성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가진 개인과 안정적인 가족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10개의 분과를 운영중임

1. 재활 및 보호 정책 사무소: 아동, 가족 보호 및 복지, 청소년 비행 관련 정책 및 법률을 개발하고 검토
2. 운영 및 서비스 역량 사무소: 재활 및 보호 부문을 위한 프로그래밍, 커뮤니티 참여 플랫폼의 전체 개발을 담당
3. 서비스과: 재무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서비스 기능의 운영 효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재활 보호 그룹을 지원
4. 성인 보호 서비스: 취약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가정폭력예방 네트워크 시스템(National Family Violence Networking System)을 감독하며, 개인 및 가족을 위한 효과적인 보호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파트너와 협력
5. 아동 보호 서비스: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책임
6. 보육 서비스: 취약한 아동을 지원하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보육 부문의 계획 및 감독
7. 보호 관찰 및 지역 사회 재활 서비스: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 관찰에 대한 범죄자의 지역 사회 재활을 지원
8. 청소년 주거 서비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재활 주거 및 사후 관리 서비스를 담당
9. 임상 및 법의학 심리학 서비스: 부서가 추천하는 아동, 청소년 및 가족에게 종합적인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상 법의학 센터 운영
10. 재활 및 보호 연구 센터 (CRRP): 재활보호그룹(RPG)의 연구 사무소로서 재활보호그룹의 연구 및 평가 노력을 조정

【 주요 질의 및 응답 】

Q1. 사회가족개발부에서는 아동복지를 위해 어떤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또한 정책 및 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민간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 ▶ 사회가족개발부는 크게 사회개발지원(Social Development and Support) 부문과 가족개발지원(Family Development and Support)부문으로 나눌 수 있음. 아동보호에 대해서는 사회개발지원부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가족개발지원부서에서 제공하는 가족 단위 서비스에도 간접적으로 아동 관련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간과는 활발히 협력하고 있음. 민간의 경우 NGO, 자원봉사 단체 등의 지역사회 파트너와 연계함. 가장 심각하고 법적 개입이나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의 아동보호 사건을 주로 MSF가 전담.

Q2.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은 무엇이고, 규모는 얼마인지? 또한,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어떤 절차를 통해 보호조치 되고, 보호조치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 주로 가정내학대로 인해 발생함. 연간 200명 정도의 아동 청소년이 아동학대로 아동학대보호 서비스에 등록됨되는데 신체학대가 가장 많고 성학대도 상당수 있음. 더 이상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할 자원이 없을 경우 이러한 보호시설에서 보호함. 한국에서 운영되는 것처럼 일반 가정집에서 거주하는 형태의 그룹홈은 현재는 없으나 논의중에 있음. 우선적으로는 친인척 가정에 배치하려고 하고 그 다음으로 위탁가정, 최후의 방법으로 양육시설에 배치함. 양육시설에는 주로 연령이 높은 아이들이 배치됨

Q3.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어떤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원가정 복귀율은 어느정도 인지?

▶ 위기가정을 대상으로는 가족-아동 인지행동 치료(CPC-CBT)를 비롯해 가족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가정 내학대의 경우 가해자의 학대가 심각하여 법적 조치를 받아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나 친인척 등을 통해 위탁양육하기도 함. 심각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았고 위기 수준에서 발견된 경우 상당수의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함

Q4.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시 시설 보호보다 가정형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 양육스트레스 등으로 위기가정이 된 경우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치료나 양육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함

Q5. 세계적인 추세 혹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싱가포르 아동복지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과 같은 문화적 차이나 아동복지 예산 규모의 특별성과 같은 재정적 차이 등

▶ 싱가포르는 아동이 살기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아동의 권리를 중요시 생각하는 문화라고 생각함. 정부나 재정의 구조는 도시국가 특성 때문에 다른 국가와 직접 비교하기가 어려움.

Q6. 싱가포르의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이며,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했던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 였던 정책은 무엇인지?

▶ 싱가포르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혼인율 감소, 혼인 연령 증가, 저출산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으로는 미혼자 만남을 주선해 결혼을 장려하는 것부터 결혼, 출산, 양육을 모두 지원하는 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가 있는데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Q.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의 가정외보호 체계 별 배치 비율은 어떠한지?

- ▶ 70%정도는 친인척에게 위탁되고 30%정도가 일반가정이나 시설에 위탁됨

Q. 한국에는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인데 싱가포르의 경우 학대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가정위탁 제도가 있는지?

- ▶ 전문가정위탁이라고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위탁가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면접, 범죄기록 조회, 심리검사, 교육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함.

Q. 아동학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있어서 조사자가 어느정도의 권력을 가지는지?

- ▶ 법적으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되어있고 학대의 심 부모와 협력하여 조사 및 개입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운영하고 있음. 한국과는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이렇게 협력하고 있음

Q.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나 처벌이 있는지?>

- ▶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이나 제재를 하지 않음. 싱가포르의 경우 학대가 있는데 신고를 안하는 경우보다는 학대가 아닌데 신고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함. 성학대 등과 같이 심각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신고 안한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정도임.

Q. 아동의 장기배치에 대한 법원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 ▶ 기본적으로 SDM tool에 따라 판단하는데 아동의 안전이 위험해

분리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분리함. 2년까지는 가정외보호를 해보고 원가정 복귀가 어려울 것 같거나 가족이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에 법원결정에 따라 장기배치. 가족이 시간을 가지면서 협조 하길 원하여 자발적으로 아동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 결정 없이도 아동배치 가능.

Q. 정서학대, 학대의 복합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학대는 재학대 발생률도 높은데,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예방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가족구성원/학교/지역사회 등이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트라우마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원가정 복귀 자체가 재학대 가능성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될 때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학대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함. 그리고 재학대를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문제가 생겨서 개입한 것이므로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예방’이라고 부르지는 않음

Q. 한국에서는 과거 민간에서 조사를 할 때 학대행위자의 반발을 막기 힘들어 공공 영역에서 공권력을 가지고 조사하려는 방향인데 싱가포르에서는 어떤지?

▶ 시스템을 더 견고하게 민간, 지역사회와 많은 협력을 하려고 노력함. 당연히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는 달가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사회 내에서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가정복귀 결정을 제때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강화하고 싶음. 원가정에서 분리된 기간이 길수록 복귀가 어렵거나 복귀 후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제 때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함. 원가정 복귀가 장기간 어렵다면 빠르게 입양결정을 내리는 것이 나을 수 있음. 이러한 방향(원가정 회복 가능성, 복귀 가능성과 관련한 빠른 의사결정)에서 법개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6. 메리몬트센터 어린이의 집 (Voluntary Children' s Home / Marymount Centre)

□ 방문 개요

- (일 시) 2019. 11. 14. (목), 14:30~16:30
- (장 소) 메리몬트 센터 회의실
- (면담자) Betty Lim(Head of Home), Yogeswari Munisamy(Senior Principal Social Worker/Child Protection Service) 외 3명

□ 기관 개요

- 메리몬트 센터는 1939년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시설로, 1984년 자선단체 법에 따라 자선단체로 등록되었고 2015년에 공공 자선기관(Charity and Institution of a Public Character: IPC)자격을 획득하였음.
- 주요서비스로는 임시배치 및 사정센터(Interim Placement and Assessment Centre), 그룹홈(Small Group Care), 어린이의 집 양육 시설(Chidren's Home) 등이 있으며 각 기관의 역할 및 제공서비스는 아래와 같음
 - 어린이의 집: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폭력, 학대 또는 부모의 투옥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4세에서 16세 여자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함.
 - 2018년 이용 아동 수 26명,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입소 아동 수 15명
 - 임시배치 및 사정센터: 2015년 시작되었으며 학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정외보호가 필요한 4세에서 12세 사이 어린이들이 장기적인 가정외보호 배치를 받기 전에 사정과 평가 진행되는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며 일반적인 체류 기간은 30 일임.
 - 2018년 이용 아동 수 125명,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입소 아동 수 6명
 - 그룹홈: 어린이의 집(Chidren's Home)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비

슷한 경험(학대 등)으로 인해 양육시설에 들어오더라도 각 아이들의 성향이 다르고 가정외보호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다르게 반응한다는 점을 통해 소규모 돌봄 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 이에 사회가족개발부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7세에서 12세 여자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그룹홈을 개설하였으며 체류 기간은 최대 18개월임.

- 2018년 이용 아동 수 13명,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입소 아동 수 10명

【 주요 질의 및 응답 】

Q1. 그룹홈을 비롯해 여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 및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되고 있으며 그 중 정부의 예산 및 인력 보조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

- ▶ 재단 기금(기부수익, 투자수익 등)과 자선활동을 통한 기금 등으로 운영되는데 재단 자체가 정부 출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정부기금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고, 재단 기금 외에 메리몬트 센터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보조금도 있음.

Q2. 메리몬트 센터에 입소 혹은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어떠한 경로로 센터에 오게 되는지? 경찰이나 정부기관의 의뢰를 받는지 혹은 직접 사례발굴을 하기도 하는지?

- ▶ 사례 자체의 첫 발견은 학교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음. 학교에서 학대의심사례로 상담사 선생님이 MSF핫라인에 신고하면 CPO가 사정을 하고 IPAC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임시배치과정으로 들어오게 됨.

Q3. 임시배치 및 사정센터에 있는 아동들의 보호조치 결정은 어떤기관에서 판단하는지, 판단 기준이 있는지?

- ▶ 학대의 심각성이나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 SDMtool에 따라 MSF와 CPO가 판단함. 법원에서 판단하여 배치되는 경우도 있음.

Q4. 경찰, 학교 등 지역사회 공공 기관과의 연계는 어떠한지?

Q5. 심리상담소, 병원 등 지역사회 민간 기관과의 연계는 어떠한지?

- ▶ 학교에 안왔거나, 병원에 왔는데 상처가 있는 등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의심사례가 있을 때 신고하라고 교육하고 있음. 애매한 문제가 있을 때는 MSF에 물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자주는 아니지만 가까운 경찰서와도 필요에 의해 자주 연락을 취하는 관계임. 사례 관련 회의에는 관련되어 있는 CPO, 심리치료사, 상담사 등을 불러서 함께 논의함. 주요 의사결정은 CPO가 내리지만 결정 과정에 이런 관계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함

Q6. 아동의 퇴소 및 사례 종결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퇴소 후 자립지원과 사후 사례 관리 서비스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관리하고 있는지?

- ▶ 사후관리도 하고 있음. 다른 기관이나 위탁가정과 연계하여 거기서 적응 잘 못할 경우 함께 논의하거나 메리마운트에서 방문하여 만나기도 함. 최소 6개월은 아이와 계속 연락하며 관리하고 사후 관리를 포함해 사례관리 전반을 CPO에서 관리함

Q. CH에는 몇 살까지 있을 수 있는지, 무연고 아동도 있는지?

- ▶ 16세까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7세까지만 있고 이외에는 모두 위탁가정에 보내졌음.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경우 18세가 되어도 계속 돌봐줄 수 있지만 아이들 스스로 나가고 싶어하기도 하고 해서 18세까지 돌봐준 경우는 없었음. 최근까지는 성공적으로 원가정 복귀를 하거나 친인척가정에 위탁됨

Q. 가정내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는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 ▶ 부모관리는 CPO에서 주로 하는데 본인의사가 중요함. 이런 심각

한 사례는 감옥안에서 부모에 대해 개입을 하고 아이를 케어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정까지 하고 복귀가 가능한 경우에만 복귀. 심각한 학대가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이거나 원가정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일반가정으로 위탁됨

Q.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 ▶ 아이들이 퇴소 후에는 먼저 퇴소한 아이들과 연결해주어 멘토-멘티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메리마운트 센터에 홈커밍 행사도 있음.

Q. 퇴소 아동들이 연락을 잘 유지 하는지? 한국의 경우 시설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므로 퇴소 후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음

- ▶ 홈마다 문화도 다르고 정책도 다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메리마운트의 경우 반년에서 일년 정도는 센터에서 연락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본인의 의사에 따름.

Q. 메리몬트 센터의 그룹홈은 시설 내에서 아동들이 소그룹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한국의 그룹홈과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 실제 집을 렌트해서 그룹홈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지?

- ▶ 아직까지는 없었고 논의는 있었음

Q. 오늘 한국방문단이 메리몬트센터의 아이들을 만나기로 되어있는데, 학대 피해아동을 방문객이 만나도 괜찮을지?

- ▶ 일반적으로는 센터에 방문객을 받지 않음. 이번 한국 방문단의 경우 모두 아동복지관련 종사자이고 정부기관에서 방문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지 않고 아동들에게 민감한 질문을 하지 않는 등의 지침을 잘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방문 및 아동 대면을 허가하였음. 메리몬트센터에서는 임직원은 물론 자원봉사자도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고 MSF의 스크리닝을 거쳐야 함.

7. 사회가족개발부 아동보호센터-가족서비스 및 입양 파트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 Child Protection Specialist Centre- Family Service and Adoption Part)

□ 방문 개요

- (일 시) 2019. 11. 15. (금), 10:00~13:00
- (장 소) 사회가족개발부 2층 Raffles Room
- (면담자) Karen Tan(Assistant Director/Children In Care), Yogeswari Munisamy(Senior Principal Social Worker/Child Protection) 외 10명

【 주요 질의 및 응답 】

Q1. 입양에 대한 중앙정부 및 민간 입양기관의 주요 역할은 무엇이며, 민간 입양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있는지?

▶ 싱가포르의 아동보호는 공공과 민간으로 나뉨. 사례는 지역사회의 민간기관이 먼저 접하게 되고 성학대나 심각한 학대는 공공에서 관여함. 아동위기도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저위험군은 지역사회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중위험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민간기관인 HEART@FEI YUE가 많이 개입함. 심각한 학대 및 방임, 성학대 등 피라미드 맨 꼭대기의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MSF가 직접 개입함. 대부분의 민간 기관도 정부 지원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부의 관리감독하에 있다고 볼 수 있음

Q. 페이유와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기관도 있는지, 세 개 기관이 지역을 나누어 관할하는지?

▶ 현재 세 개 정도의 기관이 있음. 사례가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기관에 연락이 가기는 하지만 지리적 구분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님

Q. 한국의 경우 공공이 예산 등을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페이유는 공공같은데 어떤지? 민간도 있는지

- ▶ 페이유도 공공에서 지원하는 민간기관임. 페이유의 이사회(민간)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공공이 페이유의 운영 및 예산을 참여함.

Q. 그렇다면 민간에도 아동의 정보 등이 모두 공유되는지?

- ▶ 정보는 공유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민간도 사회복지영역의 기본규칙인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한 일임.

Q. 한부모(미혼자)도 입양 가능한지?

- ▶ 두 부모가 있는 집에만 입양함. 가족을 위한 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위한 가족을 찾는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가족을 통해 배우고 가족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을 원함. 다만, 아이의 친척인 경우 싱글에게도 입양이 가능하고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는 논의를 거쳐 입양이 가능하기는 함. 싱글에게는 기준이 더 엄격함.